

청년회

🌸 토마스 머튼의 기도

"내 주 하느님, 저는 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앞에 있는 길을 보지 못합니다. 저는 그것이 어디서 끝나는지도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저는 정말로 제 자신을 모르고, 제가 당신의 뜻을 따른다는 사실이 제가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당신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그 갈망이 사실은 당신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하는 모든 것 안에서 그러한 갈망을 지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갈망을 떠나서는 어떤 것도 결코 하지 않으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한다면, 비록 제가 그것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를지라도, 저는 당신께서 저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리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저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처럼 보이고, 제가 죽음의 그늘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저는 언제나 당신을 믿고 의탁하렵니다. 당신이 늘 저와 함께 하시니, 저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는 제가 홀로 위험에 직면하도록 결코 저를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 고독 속의 사색(Thoughts in Solitude)에서



에디슨 한인성당 청년회는 본당 내에 미혼 청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년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기에 새로 방문하는 청년도 많은 반면 직장을 찾아 떠나는 청년들이 많아 에디슨 및 중부 뉴저지에 잠시나마 머무는 청년들의 하느님과 같이하는 여정에 잠시나마 함께하며 지내는동안 가족처럼 그리고 언니, 오빠, 형, 누나, 동생처럼 함께 지내고자 합니다.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리고 우리성당이 청년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몇몇 청년들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 서정희 율리나

어릴때부터 당연시하게 실내악의 일원 혹은 반주자로서 주일을 지켜왔습니다. 대학생이 되고부터는 성가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에어백이 다 터지고 유리들이 산산히 부서지는, 겉으로 보기엔 아주 큰 차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 한군데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이를 보고 엄마는 "성가대를 해서 성모님이 보호해주셨다."고 하셨습니다. 대학원은 그 당시까지의 제 삶에선 가장 힘든 시기였는데, 일주일에 한 번 성당에서 노래를 하는 순간이 잠시나마 숨 쉴 수 있는 순간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때보다도 정말 간절히 성당을 다녔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지금의 남편도 만나고 졸업도 무사히 했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졸업 후 5개월, 짧지 않았던 취준생 시절에 반주봉사를 다시 하게 되었는데, 얼마 안되어서 취업에 성공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성가대 은총이 크다는 말을 믿어요. 앞으로도 제 삶을 잘 이끌어 주실거라 믿어도 되겠지요? 율리나였습니다~

🌸 정수지 아녜스

2012년 대학원에 온지 얼마 안된 유학생의 신분으로 에디슨 성당에 발을 딛게 되었습니다. 지난 10년동안 수많은 청년들이 결혼, 취직, 이사등의 이유로 성당에 머물다가 떠나갔습니다. 그렇게 흘러 보내는 인연이 많아질수록, 언제 이별할지도 모르는 사이에 서로 친밀한 관계를 맺어 무엇하나 하는 의문이 들어 사람들에게 마음을 여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감사하게도 하느님께서는 청년 피정, 레지오 기도모임, 성경공부, 신앙관련 지도, 주일학교 봉사 등의 기회를 통해 제가 혼자만의 신앙이 아닌 공동체와 함께 성장하는 신앙 속에 뿌리 내릴 수 있게끔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제서야 신앙생활이 하느님과 나만의 사적인 만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정이 들수록, 그리스도의 각 지체로 일하는 모든 분들의 역할과 재능이 참으로 특별하고 존귀하며 신비로운 것을 점점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교수분들 사이에서 진심이 담긴 섬김과 애정어린 미소,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나눠지는 것을 볼 때마다, 저는 믿는 이들이 둘 이상에 함께 할 때 우리를 가깝게 만나주시는 그리스도를 봅니다.

🌸 송민화 비비안나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아버지와 불교 집안에서 자란 어머니 밑에서 자라 어렸을 때는 주일에 항상 교회를 갔던 기억이 납니다. 어린 마음에 교회에 가서 노래와 노는 것이 즐거웠지만 자라면서 성경공부와 예배를 빠져서는 안된다는 주변의 강요에 더이상 가기 싫고 재미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하느님을 멀리하고 2008년 처음 미국 애리조나로 유학을 왔을 때에도 Christian학교에서 유학생생활을 시작했을 때에도 항상 저에게는 낯설고 떠돌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11학년이 되어서 처음으로 Catholic 학교를 다니면서 성모님을 처음으로 접했습니다. 처음에는 신자에게만 주는 혜택들을 받고 싶어 세례를 받겠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학교에서 하는 성경공부와 주일에 미사를 참석을 했고 단지 혜택을 받기 위해 주일마다 미사를 갔던 제가 어느 순간 찬양시간이 즐거워지고 신부님의 강론에 귀 기울이며 성당 공동체의 일부가 되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원하고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저의 일부가 되어갔습니다. 2012년 뉴저지로 이사오면서 그때 에디슨 성당에 이미 다니고 있던 분들을 따라 처음 나왔습니다. 한국 커뮤니티가 낯설어 미사가 끝나면 혹시나 청년회에 잡힐까 도망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청년회도 저의 신앙생활의 일부가 되었고 처음엔 부담스럽고 싶었던 청년회장의 자리도 에디슨 한인성당 신자분들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으로 즐겁게 봉사하고 잠시 들렀다 떠나는 청년들일지라도 그 여정에 잠시나마 함께 할 수 있다는 기쁨을 느끼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용기내어 견진을 받고 신부님, 다른 청년들과 함께 성경공부를 하며 오늘도 하느님과 조금씩 가까워짐을 느끼고 있습니다.



연중 제22주일

2022년 8월 28일

미사 시간 안내

평 일 (영어미사)
화요일-7:00 PM
수 ~금-9:00 AM
주일(한국어/영어 미사)
토(특전/영어)-4:00PM
일요일(영어)-9:00AM
(한국어)-11:30AM

사무실 안내

주소: 122 High Street
South Bound Brook,
NJ 08880

#Tel : 732-356-1037
#Email: office@edisonkcc.org
근무시간: 화-목요일
(8:30AM~1:30PM)

에디슨한인천주교회

주임신부
이남웅 스테파노

본당부제
윤석로 이나시오

평협회장
채희백 바오로



에디슨한인천주교회

OUR LADY OF MERCY PARISH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루카 14,1,7-14>

< 이번 주 전례안내 >

- # 제 1독서 집회서3,17-18.20.28-29
- # 화답송 시편 68(67),4와 5ㄱㄷ,6-7ㄱㄴ,10-11(© 11ㄴㄷ 참조)
© 하느님, 당신은 가련한 이를 위하여 은혜로이 집을 마련하셨나이다.
- # 제2독서 히브리서12,18-19.22-24ㄱ
- # 복음 환호송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 # 복음 루카 14,1,7-14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 # 성가번호 입당 337 봉헌 212 성체 165 파견 23

미사지향 (연미사)

- 최복자(레지나) - 가족
- 소형덕(베드로) - 가족
- 김진철(요한) - 가족
- 김경희(수산나) - 가족
- 김명자(헬레나) - 가족
- 박병희 - 김 스텔라

미사지향 (생미사)

- 염은미(클라라) - 가족
- 채로운(로운) - 가족

< 8/17 주보 마감으로 인해 추가 미사 지향 공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일 (8/21) 헌금 및 교무금 내역은 다음 주보(9/4)에 공지됩니다.



환우들의 빠른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정영철(프란치스코) 하건철(안토니오)
- 오용덕(헨리코) 오경선(원선시오)
- 염은미(클라라)

2022 Bishop's Annual Appeal

- 7/1까지 약정금액은 \$43,502 (목표금액의 124.3%, 135 가정 참여)입니다.
- 6월 22일 기준으로 2022년 Bishop's Annual Appeal \$35,000목표금액의 122.93% 를 달성하여 교구청으로부터 \$3,173.25을 리베이트 받았습니다.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에디슨 한인성당 성모공원 조성기금 마련 골프대회 안내

- 일시: 9월 5일 월요일 (Labor Day) 12시
- 장소: High Bridge Hills Golf Club
- 참가 및 후원 문의: 오 토마스 (Thomas Oh) 917-662-8353
- 교우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무실 하계 휴가 안내

- 8월 31일까지 사무장 휴가로 인해 사무실 업무가 불가능합니다. 휴가 기간 중 사무장에게 전달하신 교무금, 감사헌금, 미사지향 신청 예물은 봉헌금과 함께 봉헌함에 넣어주시면 사무장이 휴가 후 확인하겠습니다

2차 헌금

- 9월 11일 : Peter's Pence (교황님 세계 선교사업 지원)
- 9월 18일: 유틸리티

미사 시작 10분전부터 삼중기도를 함께 바칩니다

8월, 9월 매일미사책을 신청하신 분들은

성당입구에서 사무장에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비자 교리반 모집

- 2022년 7월부터 예비자 교리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바랍니다

추석 합동 위령미사 신청 안내

- 9월 11일(주일)에는 추석 합동 위령미사가 봉헌됩니다. 봉헌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장 개인 연락처로 신청 바랍니다. (732-258-5998)

섬머셋 구역 모임

- 일시 및 장소: 8월 28일 (주일) 미사 후 친교실

전례회의

- 일시 및 장소: 9월 11일 (주일) 미사 후 성당

꾸리아 월례 회의

- 일시 및 장소: 9월 11일 (주일) 미사 후 친교실

KCB 가톨릭 방송 기금마련 걷기대회

- 일시: 2022년 9월 11일(주일) 오후 2시
- 참가비: \$20(티켓을 구입하시면 경품이벤트에 자동으로 응모됩니다.)
- 1등추첨: 메주고리에 성지순례권 (이외 풍성한 경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장소: 뉴저지 레오니아 오버팩 공원 Henry Hoebel 파빌리온 40 Fort Lee Road, Leonia, NJ 07605
- 문의: 사무실 또는 KCB 718-888-9130

주일학교 및 유스그룹 선생님 모집

- 신앙 안에서 주일학교 (K-8 grade)와 유스그룹 (9-12 grade)을 잘 이끌어 주실 선생님들을 모집합니다.
- 문의: 청소년분과장 김수완 세실리아 suwankim@gmail.com

주일학교 학생 모집

- 개강: 9월 18일
- 접수: 8월 7일부터
- 대상: K ~ 8 grade학생
- 접수비는 \$65/학생
- 신청은 OLM 성당 홈페이지에 있는 링크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청소년분과장 김수완 세실리아 suwankim@gmail.com

은혼식, 금혼식 축하 예식

- 메타천 교구 체키오 주교님의 주례로 결혼 25주년, 50주년을 기념하는 혼인갱신식이 있습니다.
- 일시: 2022년 10월 30일(주일) 오후 3시 30분
- 장소: St. Francis of Assisi 메타천 주교좌 성당

제 1독서 집회서3,17-18.20.28-29

애야, 네 일을 온유하게 처리하여라. 그러면 선물하는 사람보다 내가 더 사랑을 받으리라. 네가 높아질수록 자신을 더욱 낮추어라. 그러면 주님 앞에서 총애를 받으리라. 정녕 주님의 권능은 크시고 겸손한 이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 거만한 자의 재난에는 약이 없으니 약의 잡초가 그 안에 뿌리내렸기 때문이다. 현명한 마음은 격언을 되새긴다. 주의 깊은 귀는 지혜로운 이가 바라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 2독서 히브리서 12,18-19.22-24ㄱ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나아간 곳은 만져 볼 수 있고 불이 타오르고 짙은 어둠과 폭풍이 일며 또 파멸이 울리고 말소리가 들리는 곳이 아닙니다. 그 말소리를 들은 이들은 더 이상 자기들에게 말씀이 내리지 않게 해 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간 곳은 시온산이고 살아 계신 하느님의 도성이며 천상 예루살렘으로, 무수한 천사들의 축제 집회와 하늘에 등록된 만아들들의 모임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또 모든 사람의 심판자 하느님께서 계시고,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이 있고, 새 계약의 중개자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루카 복음 14,1.7-14

예수님께서 어느 안식일에 바리사이들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의 집에 가시어 음식을 잡수실 때 일이다. 그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님께서서는 초대받은 이들이 뒷자리를 고르는 모습을 바라보시며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누가 너를 혼인 잔치에 초대하거든 뒷자리에 앉지 마라. 너보다 귀한 이가 초대를 받았을 경우, 너와 그 사람을 초대한 이가 너에게 와서, ‘이분에게 자리를 내 드리게.’ 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하며 끝자리로 물러앉게 될 것이다. 초대를 받거든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너를 초대한 이가 너에게 와서, ‘여보게, 더 앞 자리로 올라앉게.’ 할 것이다. 그때에 너는 함께 앉아 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을 초대한 이에게도 말씀하셨다. “네가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베풀 때, 네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을 부르지 마라. 그러면 그들도 다시 너를 초대하여 네가 보답을 받게 된다. 네가 잔치를 베풀 때에는 오히려 가난한 이들, 장애인들, 다리저는 이들, 눈먼 이들을 초대하여라. 그들이 너에게 보답할 수 없기 때문에 너는 행복할 것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네가 보답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하느님을 닮은 거룩한 사람: 시복, 시성

“교회는 어떤 신자들을 시성(諡聖)함으로써, 곧 그 신자들이 영웅적으로 덕행의 길을 닦고 하느님의 은총에 충실한 삶을 살았음을 장엄하게 선언함으로써, 교회 안에 힘있게 활동하시는 성령의 힘을 인정하고, 그들을 다른 신자들에게 모범과 전구자로 세워 줌으로써 희망을 북돋아준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828항)

해마다 9월 순교자 성월이 되면 한국의 순교 성인 성녀들을 특별히 기억하며 공경합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초기의 혹독한 박해와 시련을 견뎌낸 수많은 순교자들과 선조들의 희생을 고귀한 신앙의 유산으로 간직하고 있지요. 교회는 신자들이 성인들의 모범으로 성장되고 그들의 전구로 도움을 받는 성인들에 대한 참되고 올바른 경배를 장려합니다.(교회법 1186조) 오늘은 시복과 시성을 통한 교회의 성인 공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자(福者)’는 순교나 영웅적 덕행으로 탁월한 신앙의 모범을 보인 분들에게 주어지는 칭호로서, 엄격한 조사와 기적 심사 등을 거쳐 교회가 공식적으로 공경의 대상으로 선언하게 됩니다. ‘성인(聖人)’은 복자들 가운데에서 그 성덕을 드러내주는 새로운 기적들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심사를 통해 시성이 결정되면 교황님께서 전 세계 교회의 성인으로 선언하게 됩니다. 복자는 그 공경이 특정 교구, 지역, 혹은 단체에 한정되지만, 성인은 전 세계 모든 신자들의 공경을 받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는 103위의 성인과 124위의 복자가 계십니다. 103위 성인 중 79위는 1925년, 24위는 1968년에 시복(諡福)된 후, 1984년 5월 6일 한국 천주교회 창설 200주년에 방한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에 의해 시성됨으로써 성인품(聖人品)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2014년 8월 16일에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주례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하느님의 종 윤치중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의 시복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시복 시성이 교황청 밖에서 이루어진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고, 한국 교회가 선교사들이 아닌, 평신도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신앙을 받아들이고 순교로 지켜온 특별한 교회임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두 번째 한국인 사제인 최양업 신부님을 비롯하여 여러 순교자들과 신앙의 증인들에 대한 시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자의교서 「이보다 더 큰 사랑」에서 자발적으로 타인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 것’은 순교와 영웅적 덕행과 구별되는 시복 시성을 위한 새로운 안전이라고 밝히셨습니다. 타인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은 그리스도를 참으로 온전히 닮는 것이기에 성인의 공경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당장 목숨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사랑과 희생을 실천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가 간직해야 할 순교정신일 것입니다.

사목국 선교전례사목부

